



韓 紙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 전공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전공사무실 순현관 220호 전화 02) 710-9373 팩스 02) 710-9276
실습실, 순현관 211호 전화 02) 710-9266
홈페이지 <http://lis.sookmyung.ac.kr>

<참고>

천양제지주식회사 <http://chunyangpaper.com>
신종한지 <http://www.sphanji.com>
전통수공예품소평물 <http://korea.webben.co.kr>
원주전통한지 <http://www.wj-hanji.co.kr>
전주전통한지
블로그 <http://blog.naver.com/jjhanzi>
홈페이지 <http://www.hanzi.co.kr>

제작 윤 선 정 (문헌정보05)

한지의 역사



한지는 105년 중국 후한(後漢) 때의 채륄(蔡倫)에 의하여 발명되었다고 전해지나 발명이 아니라 개량했다는 설도 있다. 전상운의 「한국과학사」에 의하면 종이는 기원전 50 내지 40년대의 전환(前漢)시대에 발명되었는데 105년경에 채륄에 의해서 품질이 좋은 종이의 생산이 확대, 보급되면서 제지 기술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전한다. 채륄의 종이 발명 연대는 고구려의 태조왕(太祖王) 52년, 백제 기루왕(居婁王) 29년, 신라 파사왕(婆娑王) 26년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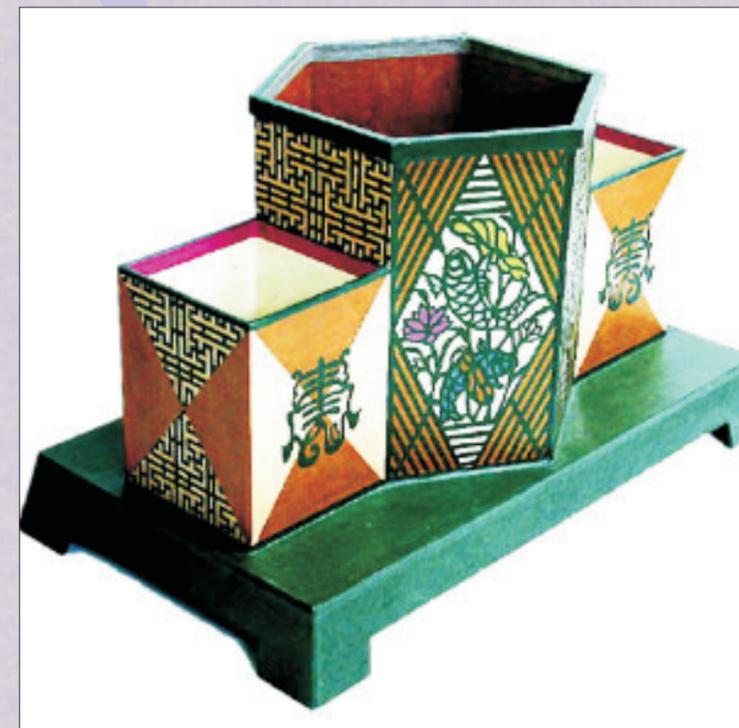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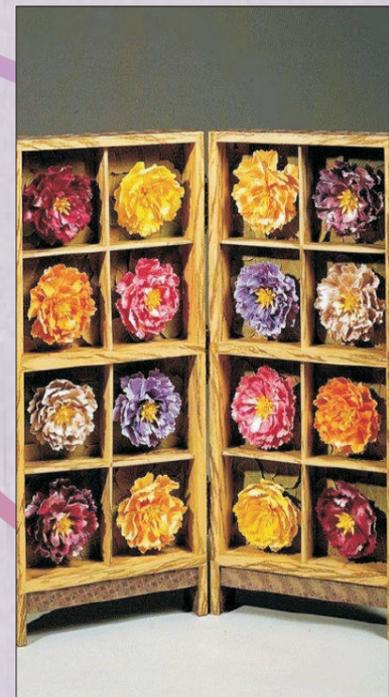
제지 기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불교가 전래된 고구려 소수림왕 때(371~383년)의 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의 창건부터 소수림왕 때까지 기록한 「유기(留記)」라는 사서(史書)에 낙랑시대 고분의 관(棺)에서 닥종이 뭉치가 발견되어 우리나라의 종이 역사는 소수림왕 때보다 훨씬 전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고구려 영양왕(英陽王) 20년(610)에 담징(曇徵)이 종이를 베풀어, 먹(墨)을 일본에 전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정창원(正倉院)에 보관되어 있는 신라의 호구, 전답, 가축, 수목 등을 조사, 기록한 「신라 장적기(神羅帳籍記)」는 만들어진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신라 중기의 것으로 보이는 한지로 만든 것이다. 또한 1966년 불국사 석가탑 2층 탑신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쇄물로 751년에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중국 후한 때보다 앞서 이미 신라에 종이 발명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송(宋)나라 손목(孫穆)이 지은 「계림지(鷄林志)」에 "고려저지광백하애호 백추지(高麗楮紙光白好愛號白추紙; 고려 닥종이는 윤택이 나고 흰빛이 좋아서 백추지라 부른다)"라고 하였다. 「고려도경(高麗圖經)」 「고반여사(考

槃餘事)」 「문방사고(文房肆攷)」 등 중국의 기록을 보면 고려지를 칭찬한 기록이 나오며 조공품(調貢品)으로 강요당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조 태종이 1년 조지소(造紙所)는 맨 먼저 종이를 관장하던 곳으로 1882년 고종 19년까지 향교, 서당, 서원, 도화서 등의 종이수요를 감당했으나 1901년 용산에 양지(洋紙) 제지소가 들어서면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한지의 명칭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를 들면 조선종이(朝鮮紙), 창호지, 문종이, 참종이, 닥종이, 닥지, 저지(楮紙) 등이 있으며 이규경이 지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州衍文長箋散稿)」에 "고려 종이는 천하에 이름을 떨쳤는데 그것은 다른 원료를 쓰지 않고 닥나무만을 썼기 때문이다. 그 종이가 하도 매끄럽고 두꺼워서 중국 사람은 '고치종이'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닥껍질 말고도 벚짚, 버들잎, 갈대잎, 삼베, 어망, 죽엽, 송엽, 부들 등을 섞어서 만들기도 했다. 이토록 다양했던 종이를 만드는 기술은 지금은 원주, 전주 등지에서 전통한지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한지의 우수성

질기고 강하다

한지의 질기고 강한 특성은 한지를 몇 겹으로 바른 갑옷의 예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옷칠을 입힌 한지로 만든 갑옷은 화살도 뚫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가죽처럼 질기다 해서 등피지(等皮紙)라고도 했던 우리나라 전통한지는 종이의 종주국인 중국인 들조차도 그 품질을 따라오지 못할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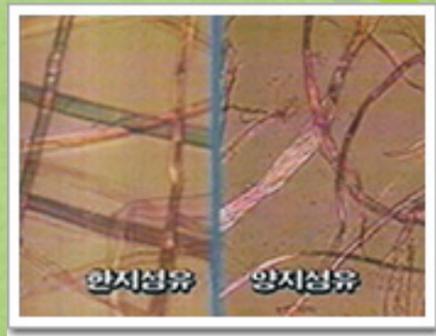
수명이 길다

양지는 지료 pH 4.0이하의 산성지로서 수명이 고작 50~100년 정도면 누렇게 황화현상을 일으키며 삭아버리는 데 비해, 한지는 지료 pH 9.0 이상의 알칼리성지로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결이 고와지고 수명이 길어 천년 이상 그 성질을 유지할 수 있다.

흡수성과 통기성이 좋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붓과 먹물을 가지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에 적당하도록 먹물을 받아들이며 얇고 반투명한 종이를 제작했다. 흡수성으로 인해 서양 미술 지료의 주를 이루는 기름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지만 양지가 물에 약해서 물과 함께 만나면 쉽게 펄프와 되어 버리지만, 한지는 일정량은 흡수하여도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한지는 섬유 사이에 적당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공기를 소통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고, 햇빛을 투과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지의 통기성과 햇빛 투과성으로 인해 우리 조상들은 창호지로 많이 사용하였다.



동양적 특성이 강하다

한지에는 동양적인 고전미를 가지고 있다. 한지에서 느껴지는 은은함이나 온화함, 소박함과 자연스러움 등은 결코 양지에서는 느낄수 없는 느낌으로서 한지의 고유한 특성이고, 이것은 동양적인 정서와도 일치한다. 한지의 종류는 원료인 닥피 지류에 따라, 방법에 따라, 용도에 따라, 크기와 두께에 따라, 그리고 생산지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뉘어 왔으며, 그 명칭은 백가지도 넘는다. 그러나 지금은 한지 산업의 사양화로 말미암아 대부분이 자취를 감추고 창호지, 장판지, 화선지, 배접지, 소지(초배지)정도가 겨우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특유의 고해기술이 있다

닥나무 긴 인피섬유를 단섬유화 시키지 않으면서 섬유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특유한 고해기술이 있다. 종이를 초지하여 건조한 후 우리 고유의 도침 처리를 하면 종이의 표면이 치밀해지고, 팽창도가 향상되며, 광택효과를 얻을 수 있고, 보풀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촉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한지는 부드럽고도 질긴 성질을 갖고 있어 엮고, 구기고, 비틀어서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회화에서부터 종이 공예, 서예, 조소의 영역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와 혼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킬수 있는 가변성을 갖고 있다.

실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옛날부터 한지는 거의 모든 재료를 대신하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유리 대용으로 창문에 바르고, 조명등을 만드는데 사용하며, 장판을 바르고, 부채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지화, 지폐, 부적등의 제작 재료로도 사용되었다.



전통한지 만들기



닥무지(닥나무 찌기)

껍질이 잘 벗겨지도록 하기 위해 흐물흐물해질때까지 찌준다.



껍질 벗기기

찐 닥나무 껍질을 벗긴 후 말려서 흑피를 만든 후 다시 불려 껍질을 벗겨 백피를 만든다.



삼기 - 증해(蒸解)

물에 충분히 불린 후 잿물과 함께 4~5시간 삶는다.



두드리기 - 고해(叩解)

돌판이나 나무판 위에 올려놓고 40~50분 정도 두드려준다.



원료배합

닥풀 수액을 넣고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도록 잘 섞어준다.



종이 뜨기

초지통에 분산된 원료를 외발을 이용하여 날장으로 종이를 뜬다.



물 빼기

한장 한장의 종이를 쌓고 발을 올려놓은 채 등글통을 이용하여 물을 뺀다.



말리기 - 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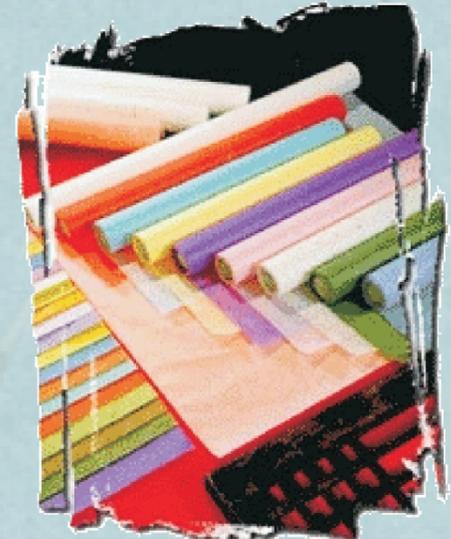
습기가 천천히 건조되면서 종이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말라 울지않고 질기게 한다.

한지의 분류

단종 2년(1454)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 권공조]에 의하면 조선지의 종류는 운료, 색상, 형태,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원료에 따른 분류

- 고정지 : 구리짚을 원료로 하여 만든 종이
- 마골지 : 마의 대를 잘게 부수어 섞어 만든 종이
- 마분지 : 짚을 잘게 부수어 섞어 만든 종이
- 상지 : 뽕나무 껍질을 섞어 만든 종이
- 송엽지 : 솔잎을 잘게 부수어 섞어 만든 종이
- 송피지 : 닥나무에 소나무 속껍질을 섞어 만든 종이
- 유목지 : 버드나무를 잘게 부수어 섞어 만든 종이
- 유엽지 : 버드나무 잎을 섞어 만든 종이
- 태장지 : 털과 같이 가는 해초를 섞어 만든 종이
- 태지 : 이끼를 섞어 만든 종이



용도에 따른 분류

- 간지 : 편지 등에 쓰이는 두루마리 종이
- 갑의지 : 병졸의 겨울옷 속에 솜 대신 넣었던 종이
- 관교지 : 나라 또는 관아에서 교지 명령을 내릴 때 썼던 종이
- 배접지 : 화선지 등 종이 뒷면에 붙여썼던 종이
- 상소지 : 상소를 올릴 때 썼던 종이
- 선자지 : 부채를 만드는 데 쓰이던 종이
- 소지 : 신에게 소원빌 때 태워 올리는 종이
- 사지 : 과거시험 칠 때 썼던 종이
- 저주지 : 주화를 만들었던 종이
- 족보지 : 족보를 만들 때 썼던 종이



크기, 두께에 따른 분류

- 각지 : 가장 두꺼운 종이
- 강강지 : 넓고 두꺼운 종이
- 대호지 : 품질이 그리 좋지 않은 넓고 긴 종이
- 삼첩지 : 백지보다 두껍고 장황이 크고 누런 종이
- 선익지 : 두께가 잠자리 날개처럼 얇은 종이